

이렇게 해서 내가 생각하는 바를 나열해보았는데, 적어놓고 보니 오히려 한숨이 나온다. 정작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새로운 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항상 습관이란 것이 커다란 장애가 된다. 그 원칙들이 내가 스스로 발견하고 제시한 것들이라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이제부터라도 많이 읽고 많이 쓰는 수밖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원칙들을 새로운 습관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 습관들이 다시금 낡은 것이 되었을 때, 이를 훌쩍 떠날 수 있을 만큼의 유연한 태도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은 채로 말이다. **9**

글 쓰는 과정과 글쓰기의 의미

이정규*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재학생, 2008년 1학기 '제4회 우수리포트 공모대회' 수상자(우수상 「현상학의 관점에서 본 심리철학의 타당성」).

필자가 글쓰기에 어느 정도 친숙해진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이번 학기로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2~3년 전만 해도 '글을 잘 쓴다'는 것은 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의 얘기라고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필자는 고등학교 때까지 소위 '이과 학생'이었으며 글쓰기보다는 수학적 문제풀이에 더 친숙했고, 대학생이 되어 물리교육과에 들어와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철학과 복수전공을 통해 글쓰기에 조금씩 친해지게 되었고,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글쓰기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교육도 받지 않은 필자가 어떻게 하면 글을 훌륭하게 쓸 수 있으며 그러한 글을 통해 남을 설득시킬 수 있는지를 여기에서 논한다면 그것은 필자의 능력을 벗어나 월권을 행사하는 격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훌륭한 서적들을 이용하거나 글쓰기교실을 통해 도움을 청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것이다. 또한 필자는 우리가 '대학국어' 시간에 배웠던 글쓰기의 전형적인 순서를 따라서 글을 쓰지도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만 필자가 글을 쓰는 과정이 어떠한지 단지 글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만 하나의 우화로서 보여주는 것이 적당할 듯싶다. 아마도 여기에서 독자들은 필요한 것은 취하고 쓸데없는 것은 버릴 수 있을 것이다.

1. 필자의 글 쓰는 과정

글을 쓰기 전에 필자에게 나타나는 상황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가지는 리포트나 논문과 같이 일종의 의무로서 과제가 먼저 주어지는 경우이고, 다른 한가지는 어떠한 주제로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주어지는 경우이다. 생각이 먼저 주어지는 경우에는 자발적이고 비교적 물 흐르는 듯이 막힘없는 글 쓰기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과제가 먼저 주어지는 경우 종종 억지로 생각을 쥐어 짜내려고 하다보면 엉성하고 산만한 글쓰기가 되어버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게 된다.

그래서 필자는 전자의 경우를 후자의 경우로 환원시키려 노력한다. 글을 써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면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을 해본다. 일부러 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나뭇잎을 먹을 때와 같이 잠이 나는 시간을 이용하면 어느 순간 그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렇게 아이디어들이 하나둘 모아지면 아이디어의 단상들을 산발적으로 연습장이나 워드프로세서에 적어 내려간다. 그것들은 어떤 경우에는 완결된 문장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엔 하나의 문단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글을 쓰기 전까지 아이디어들이 모아지면 이제 그러한 아이디어들을 하나의 글로 끼워 맞추어나간다. 억지로 빈칸을 메우기 위해 생각해낸 아이디어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각이 넘쳐 흘러나온 자신만의 아이디어라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자신만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고, 이러한 것이 반복되면 효과적인 표현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

물론 마구잡이로 글을 끼워 맞추는 것은 아니다. 어느 글처럼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그에 알맞은 아이디어들을 배치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때 모든 아이디어를 배치하고 나면 빈 공간이 생기는데, 필자에게는 이 빈 공간을 메우는 일이 가장 힘들다. 예를 들어 하나의 생각과 다른 생각 사이에는 공간이 남고, 이 공간을 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한 말들로 채워나가야 하는 경우가 그렇다. 그렇다면 글의 흐름을 매끄럽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솔직히 말하자면 필자는 잘 모르겠다. 아마도 암묵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그것을 명료하게 알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좀 상투적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말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다보면 이러한 능력이 향상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식으로 글이 완성되고 나면 이제 퇴고를 한다. 퇴고를 하는 과정은 우선 워드프로세서의 맞춤법 검사를 이용한 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글 전체를 정독하는 것이다. 또한 맞춤법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는 경우에는 네이버 국어사전을 이용한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초고를 완성하여 글을 읽어보았을 때 맞춤법이 모두 맞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 또한 모든 문장의 주술관계가 매끄러웠던 적도 거의 없었으며, 접속사들이 어색하게 쓰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처럼 퇴고를 거치면 경우에 따라서 또 몇 가지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수정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 후 몇 번의 수정 작업과 퇴고를 거친 후에 비로소 완결된 글 한 편이 나오게 된다.

2. 필자가 생각하는 글쓰기

글쓰기는 생각을 올바르게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물론 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표현될 수 있는지, 아니면 글에 우리의 생각이 의존하는 것인지는 또 다른 철학적 문제이지만, 적어도 여기에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문학작품을 쓰지 않는 이상 현학적인 내용이나 정신없는 구성, 케변적인 논의, 필요 이상으로 긴 내용 등을 통해 남을 홀리려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글을 잘 쓰고 싶으면 역설적으로 우선 글을 잘 쓰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정말 좋은 글'보다는 '좋은 것처럼 남을 홀리는 글'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것보다는 글이 단순히 자신의 의도를 남에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남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만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항상 '내 생각은 아주 대단한 것이며 나는 그것을 남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런데 어설픈게 알려줬다가는 나의 대단한 생각을 남이 오해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글을 통해 내 생각을

남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을까와 같은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생각으로 몇 년간 틈틈이 글을 쓰다보면 괄목할 만한 글쓰기 능력의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좋은 글은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명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글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변변치 않은 생각을 변변치 않게 써내려간 글보다 위험한 것은 바로 변변치 않은 생각을 휘황찬란하게 무언가 대단한 것이라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쓴 글이다. 우리가 글을 쓸 때 생각의 효과적인 표현에만 집착한다면 좋은 글과 좋은 글처럼 꾸며진 글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 또한 더불어 생길 것이다. 데리다는 “텍스트의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글을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비록 그의 말이 옳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의 글이 상대방에게 오해의 소지가 줄어들도록 노력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 